

이재명, 당내 기본사회위원장 맡아... 민생 이슈 주도

최소한의 삶 아닌 일정 수준 이상의 삶 영위하는 것 국가가 지원해야 기본주거·기본금융 등 포함...여권과 차별화로 대안 정당 리더십 제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기본사회' 구상을 뒷받침할 당내 기본사회위원회 위원장을 직접 맡는 등 민생 이슈로 사법리스크를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특히, 검찰 출석을 계기로 사법리스크가 한 고비를 넘었다는 판단 아래, 민생에 공을 들여 흐트러진 민심을 잡아가면서 정국을 헤쳐나가겠다는 구상이다.

15일 민주당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표는 새로 출범하는 당의 기본사회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기본사회' 구상은 최소한의 삶이 아닌 일정 수준

이상의 삶을 영위하는 것을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지난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구체화한 '기본사회'는 대선 당시 이슈였던 기본소득은 물론 기본주거, 기본금융 등의 개념까지 포함한다.

자신의 상징적인 정책을 책임질 기본사회위원회를 직접 맡아 민생 이슈에 총력을 펼치겠다는 것이다. 고물가·고금리 등 경제위기 속에서 여권과 차별화되는 대안 정당의 면모와 리더십을 제시하겠다는 뜻으로도 읽힌다. 특히, 설 명절을 앞둔 만큼 민생 이미지를 강화, 자신뿐 아니라 당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겠다는 전략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민생경제에 무능한 정부의 실정을 비판할 수는 없다"며 "민심이 체감할 수 있는 대안을 내놓아야 민주당의 지지세도 넓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월세 보증금 이자 지원, 한계자주 대한대출 지원 등 신년 회견에서 제안한 30조원 규모의 '긴급 민생계획'도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 이 대표의 민생 행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 대표가 민생 이슈로 자신을 둘러싼 사법리스크를 벗어날 수 있을 것인지는 미지수다. 당장, 검찰의 수사가 현재진행형이라는 점은 절박하고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당장, 이 대표의 변호사비를 대납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성태 전 상방을 그룹 회장이 급주 초 입국할 예정이어서 해당 의혹이 다

시 여론의 주목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곧 이 대표를 소환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특히, 이 대표가 반복해서 검찰 포토라인에 설 경우, 민생 이슈를 '주도'하며 민심을 견인하려는 노력이 힘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이 과정에서 당내 비명(비이재명)계 목소리가 커지면서 우려하던 당 분열 양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이 같은 상황을 염두에 둔 듯, 이 대표는 지난 13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현 당내 상황과 관련, "지금 엄중한 시기다. 적이 몰려오는데 싸우고 안 보이는 데서 침 뱉고 발로 차는 것을 줄여야 한다"며 "결국 모두를 망치는 것"이라며 검찰 수사에 대한 단일대응을 강조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오는 18일에는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모여 '사의제'라는 이름의 포럼을 공식 출범시킨다. 사의제는 민주당 정부 성과 계승, 발전을 도모하는 정책 포럼 성격이지만 문재인 정부 장관 및 청와대 출신 현역 국회의원들도 합류할 예정이어서 이들이 결집하면 이 대표에 대한 견제 세력으로 부상할 수도 있다. 광주·전남지역 정치권에선 이개호·윤영덕·신정훈 의원 등이 참여한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 대표가 민생 강화로 사법리스크를 벗어나려 하고 있지만 그리 쉽지는 않아 보인다"며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경선 통과 핵심 공천 등을 놓고 당내 내홍이 격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국가가 기본적인 삶 책임지는 시대 열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박홍근 원내대표. /연합뉴스

꼬리만 자르고 끝난 '이태원 참사 수사'

특수본 74일간 23명 송치...행안장관·서울시장 등 '윗선' 무혐의

159명의 희생자를 낸 이태원 참사의 원인과 책임 규명에 나선 경찰 특별수사본(특수본)이 13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활동을 마무리했다.

이태원 참사 사흘 뒤인 지난 11월 1일 501명 규모로 출범한 특수본은 참사가 발생한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을 관할하는 용산구청과 용산경찰서, 서울경찰청, 용산소방서 소속 공무원을 상대로 74일간 수사했다.

박희영(62) 용산구청장과 이임재(54) 전 용산경찰서장 등 총 23명(구속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검찰에 넘긴 특수본은 이날 말까지 압수물 기록 정리 작업 등을 한 뒤 해산할 예정이다.

특수본은 이번 참사가 관할 지자체와 경찰, 소방 등 법령상 재난안전 예방·대응 의무가 있는 기관들이 사전 안전대책을 수립하지 않거나, 부실한 대책을 수립하는 등 예방적 조치를 하지 않아 발생한 '인재'라고 판단했다. 참사 이후에도 기관별로 법령과 매뉴얼에 따른

인명구조나 현장 통제 등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특수본은 기관들의 이러한 과실이 중첩돼 다수의 희생자가 발생했다고 보고 각 기관 소속 공무원들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의 공동정범으로 묶었다. 이에 따라 박 구청장과 이 전 서장을 비롯한 구청·경찰 간부 4명을 할러원 측제 인파 관리 등 예방 조치를 소홀한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

용산서 정보관이 작성한 할러원 위험분석 정보 보고서를 삭제한 혐의(증거인멸 교사 등)로 박성민(56)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정보외사부장(경무관) 등 경찰 정보라인 간부 2명도 구속 송치했다. 특수본은 또 할러원 측제에 인파가 몰릴 것을 사전에 인지했음에도 안전관리 대책을 세우지 않은 혐의로 김광호(59) 서울경찰청장장 류미진(51) 전 서울형 인사교육과장(총경), 정대경 전 서울형 112상황3팀장(경정) 등 서울형 간부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연합뉴스

권영세 “올해 北과 대화 할 생각”

통일장관 KTV 국정대담...“전 정부 정책 이어받을 부분 존중”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15일 “올해는 어떻게 해서든지 북한과 대화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할 생각”이라며 남북 간 대화 재개 의사를 피력했다.

권 장관은 이날 방송된 KTV 국정대담 ‘국민이 묻고, 장관이 답하다’에 출연해 “지금 남북관계에서 가장 시급한 일은 대화가 이뤄지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형태로든, 농업협력이나 기후협력 같은 작은 이슈든가 조금 쉬운 부분이라도 먼저 대화가 이뤄지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며 “궁극적으로 대화를 해야 비핵화의 실제적인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는 반드시 북한과 건설적인 대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역점을 두고 일을 해나갈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올해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권 장관은 “북한은 작년의 마지막 날을 미사일 도발로 마감하고 올해의 첫날도 도발로 시작했다”며 “올해도 도발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조금 더 압박하는 것이 대한민국으로부터 더 양보를 받아낼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긴장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나올 것 같다”고 우려했다. /연합뉴스

野 “尹대통령, 해임할 사람은 나경원 아닌 이상민”

민주 ‘이태원 국조’ 종료 후 후속 대책 마련...탄핵소추 추진 검토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정말 해임해야 할 사람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라며 이를 전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장과 기후환경대사직에서 각각 해임한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나 전 부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했음에도 사표 수리가 아닌 해임을 시켰다. 참 용렬한 대통령”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나 전 의원의 거취를 둘러싼 여당 내분 상황을 비교는 동시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종료 시점에 맞춰 이 장관의 경질을 거듭 압박한 것이다.

오 원내대변인은 윤 대통령을 향해 “자기 사람이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지르고, 국민의 해임 요구가 높아도 감싸주는 것이 대통령의 덕목이라고 착각하는 것 같다”며 “정말 공사 구분 못 하는 대통령”이라고 쓰아붙였다.

이어 “이 장관은 윤 대통령의 복심이라는 이유로 지금까지도 자리에서 버티고 있다”며 “윤 대통령은 편 가르기 정치를 멈추고 참사의 책임자인 장관을 해임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오는 17일 종료되는 국정조사 이후에도 별도 조사기구나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한 후속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앞서 예고한 대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추진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민주당은 MBC의 이른바 ‘바이든’ 자막 방송과 관련해 법원에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한 외교부를 비판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정정보도를 청구하려면 무엇이 사실인지가 명확하게 성립해야 한다”며 “하지만 윤 대통령은 무슨 발언을 했는지 밝히지 않고 있다. 무엇이 진실인지 알 수 없는데 어떻게 정정보도를 하라는 말이나”고 따졌다. 이어 “이미 지난해 9월 국민의힘은 비속어 논란 보도를 이유로 MBC를 검찰에 고발했다”면서 “그러나 집권여당도 모자라 아예 정부 부처인 외교부까지 나선 것”이라고 꼬집었다. /연합뉴스

<h3>전원주택 (1채) → 7,000만</h3> <p>(토지 분양 중) 장성담 5분, 광주 20분, (6M도로 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세컨하우스 ② 소형 주택 ③ 전기,수도,배수 완비 ④ 주말 하우스 최고 ⑤ 잔디,나무,일체 포함 <p>★ 토지분양 → 전원주택 토지 (100평, 150평, 200평)</p>	<h3>상가매매(상무지구)</h3> <p>(매매, 임대) 권리금 없음</p> <p>▶ 중심 상업지구 (유형 적합)</p> <p>(6층, 7층) = 140평</p> <p>시세 → 10억</p> <p>➡ 급매 7억</p> <p>보3천 월 380만 (용 4억5천)</p>	<h3>경매교육 [특수 전문반]</h3> <p>기초반, 중급반</p> <p>* 특수 전문반 모집 (10명)</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초반 (기초부터 실전) 2) 중급반 (실전부터 ~) 3) 특수반 (유치권, 법지, 지분) 4) 투자반 (투자가능한 분) <p>▶ 경매 물건 추천 ◀</p>								
<table border="1"> <tr> <td>북구 두암동 (상가주택) ▶ 감평가 3억9천만 → 최저가 2억7천</td> </tr> <tr> <td>광산구 하남동 (근린상가) ▶ 감평가 62억 → 최저가 35억</td> </tr> <tr> <td>서구 화정동 (주택) ▶ 감평가 1억9천만만 → 최저가 1억2천</td> </tr> <tr> <td>광산구 박호동 (주택) ▶ 감평가 4억4천 → 최저가 3억</td> </tr> <tr> <td>광산구 하남동 (공장) ▶ 감평가 36억 → 최저가 16억</td> </tr> <tr> <td>장성 동화면 (과수원) ▶ 감평가 8억2천 → 최저가 5억7천</td> </tr> <tr> <td>나주 빛가람동 (식자재마트) ▶ 감평가 54억 → 최저가 30억</td> </tr> <tr> <td>김제시 하동 (아파트 293세대) ▶ 감평가 130억 → 최저가 65억</td> </tr> </table>			북구 두암동 (상가주택) ▶ 감평가 3억9천만 → 최저가 2억7천	광산구 하남동 (근린상가) ▶ 감평가 62억 → 최저가 35억	서구 화정동 (주택) ▶ 감평가 1억9천만만 → 최저가 1억2천	광산구 박호동 (주택) ▶ 감평가 4억4천 → 최저가 3억	광산구 하남동 (공장) ▶ 감평가 36억 → 최저가 16억	장성 동화면 (과수원) ▶ 감평가 8억2천 → 최저가 5억7천	나주 빛가람동 (식자재마트) ▶ 감평가 54억 → 최저가 30억	김제시 하동 (아파트 293세대) ▶ 감평가 130억 → 최저가 65억
북구 두암동 (상가주택) ▶ 감평가 3억9천만 → 최저가 2억7천										
광산구 하남동 (근린상가) ▶ 감평가 62억 → 최저가 35억										
서구 화정동 (주택) ▶ 감평가 1억9천만만 → 최저가 1억2천										
광산구 박호동 (주택) ▶ 감평가 4억4천 → 최저가 3억										
광산구 하남동 (공장) ▶ 감평가 36억 → 최저가 16억										
장성 동화면 (과수원) ▶ 감평가 8억2천 → 최저가 5억7천										
나주 빛가람동 (식자재마트) ▶ 감평가 54억 → 최저가 30억										
김제시 하동 (아파트 293세대) ▶ 감평가 130억 → 최저가 65억										
<p>010-6670-9800</p>	<p>010-2614-9801</p>									